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4. 2.(월)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대중교통과	담당 자	• 과장 김기대, 사무관 임창호, 주무관 최아진 • ☎ (044) 201-3828, 3829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3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2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, 봄철 나들이 떠나는 전세버스 특별 현장점검 실시 주요 관광지 현장 점검...속도제한장치·안전띠 확인 등 안전관리 강화

- 꽃구경, 체험학습 등 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,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행락철(4월)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.
-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, 재생타이어, 속도제한,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.

구 분	주요 점검 내용
차량시설 안전상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속도제한장치 해제, 운행기록장치 작동, 불법구조변경 • 안전띠, 소화기·비상망치 비치, 재생타이어 사용 또는 마모 등
운전자 안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전자 무자격, 음주운전여부, 지입운행 등

- 그동안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등 범정부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교통선진국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.

* 사망자수(연도): 5,114('78) → 13,429('91) → 5,392('12) → 4,762('14) → 4,185('17)

○ 이에 따라, 최근 버스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전세버스사고도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비해 전세버스 운행량이 가장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안전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. 이는 전세버스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한 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.

* 최근 3년간 봄 행락철 사고: 4,965 (29.8%, '15) → 4,865 (28.4%, '16) → 4,305 (27.0%, '17)

○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, 지자체,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 다니며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.

- 아울러, 최근 빈발하는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갖고,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*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며,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널리 알려 운전자의 안전운전 실천의지도 독려할 것이다.

구 분	주요 내용
준수사항 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휴식시간 준수, 음주운전 금지,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안내, 차내 가무행위 근절, 대열운행금지, 핸드폰사용 금지 • 비상망치·소화기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내방송 등

□ 국토교통부 김기대 대중교통과장은 “이번 행락철 현장중심의 특별 점검을 통해 산뜻한 봄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봄을 즐기려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면서,

○ “즐겁게 봄을 맞이하는 전세버스 이용객들도 봄 나들이 정취에 젖어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가지고, 교통안전을 적극 실천하여 주실 것을” 당부했다.

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임창호 사무관(☎ 044-201-382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